

2010, 그 사건 그 후 ...

② 학교주변 잇따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보호 사회 문제로

배움터 지킴이 배치·CCTV 확대

대학에 여자 초등학생을 학교에서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 이후 광주·전남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아동 대상 성범죄는 청소년 성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계기가 됐다.

경찰과 교육당국은 배움터지킴이, 민간경비원 등을 상주시켜 학교주변 감시체계 구축에 나섰고, CCTV 설치학교 확대, 성범죄 예방·엄단을 위한 법·제도 정비도 뒤따랐다.

올해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각각 34건, 51건 등 총잡아 85건의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가 발생, 지역사회 문제화 됐다.

대표적으로 지난 8월 22일 오후 광주시 동구 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박도(28)씨가 정신지체 2급인 A(12·5년)양을 정문에서 본관 까지 끌고 가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지난 9월 2일 오후 윤모(40)씨는 광주시 북구 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혼자 놀고 있던 이 학교 학생 B(9)군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성폭행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확산되자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초등학교 각각 26곳, 70곳을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선정, 감시체계를 강화했다. 이를

김수철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 그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현재 광주교도소에 서무기수로 복역 중이다.

지난 8월에 동구에서 장애인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박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정보공개 10년·전자발찌 착용 20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아동 성범죄 근절책으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게 지배적인 여론이다. 교내 CC-TV 사각지대가 있고, 모든 학교에 경비원이 상주하는 것이 아니어서 범죄를 막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24시간 감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교육청 유정종 장학사는 "2011년부터 광주 지역 모든 초등학교의 CC-TV 회선을 모아 통합 관제센터를 마련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센터가 마련되면 통합 감시와 연락망을 구축해 교내 범죄를 예방·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도 아동 성범죄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는 등 엄단에 나섰다.

광주·전남에서도 85건 CCTV 사각지대 여전

24시간 감시체계 시급

학교에 경비실과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 고, 민간경비원을 1명씩 배치했다.

퇴직 경찰이나 교원 등으로 구성된 배움터지킴이 수도 을 현재 초·중·고교 276명으로 지난해(65명)보다 늘었다. 전남도 42명에서 225명으로 늘렸다.

성범죄 예방·감시를 위한 CCT- TV 대수도 대폭 늘었다. 광주 지역 지난해 초·중·고 208곳(1065대)에 그쳤던 CC-TV 확보 학교가 올해 현재 285곳(1846대)으로 늘어났다.

사법부도 아동 성범죄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는 등 엄단에 나섰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전남도교육청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무지개 학교'(혁신학교)에 전남 초·중·고 30곳이 선정됐다.

전남도교육청은 16일 "학교의 자율화·다양화·특성화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학교 모델을 만들기 위한 '무지개 학교' 30곳을 지정, 내년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선정 학교는 초등 19개, 중 9개, 고교 2개 학교다.

무지개 학교에는 1억원 인큐브 재정 지원과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교원 연수기회 제공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학교는 ▲다양화·특성화한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생 중심 교육 ▲교육과정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학부모·지역사회 협력체계 마련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내년을 무지개 학교 '도입기'로 정하고 성장기(2012년), 발전기(2013~2014년), 확산기(2015) 등 단계를 거쳐 전 학교로 확산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또 별도로 자율 무지개학교를 지정, 내년 하반기에 운영 성과를 분석한 후 다양



동지죽 한 그릇 '행복 나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광주 남구지부 '진송봉사회' 회원들이 16일 남구 진월동 푸른길공원에서 '제3회 동지죽 행복 나눔진작'을 열어 이웃 어른들에게 동지죽을 대접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 혁신학교 30곳 선정

'무지개 학교' 초 19·중 9·고 2개 학교

전남도교육청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무지개 학교'(혁신학교)에 전남 초·중·고 30곳이 선정됐다.

전남도교육청은 16일 "학교의 자율화·다양화·특성화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학교 모델을 만들기 위한 '무지개 학교' 30곳을 지정, 내년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선정 학교는 초등 19개, 중 9개, 고교 2개 학교다.

무지개 학교에는 1억원 인큐브 재정 지원과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교원 연수기회 제공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학교는 ▲다양화·특성화한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생 중심 교육 ▲교육과정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학부모·지역사회 협력체계 마련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내년을 무지개 학교 '도입기'로 정하고 성장기(2012년), 발전기(2013~2014년), 확산기(2015) 등 단계를 거쳐 전 학교로 확산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또 별도로 자율 무지개학교를 지정, 내년 하반기에 운영 성과를 분석한 후 다양

▲무지개 학교 명단=목포 산정초, 여수 돌산초, 관기초, 순천 별량초 송산분교장, 순천별량중, 나주북초, 광양 옥룡초, 옥곡중, 광양여중, 고서초, 광성 죽곡초, 구례 토지초, 구례동중, 구례북중, 고흥 도화고, 보성남초, 회순 사평초, 한천초, 장흥남초, 강진칠량중, 해남 송지초, 서정분교장, 두림중, 영암 도포초, 무안 청계남초, 환평신광중, 영광고, 장성북중, 완도 화흥초, 군내북초, 신안 지도초.

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만체 교육감은 "무지개 학교는 미래사회에 대비해 우리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교육을 실현해 나가는 새로운 학교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새벽엔 추워요

서해안 지방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광주	구름침차적어짐	-3°C
목포	구름침차적어짐	-1°C
여수	구름조금	-1°C
나주	구름침차적어짐	-4°C
완도	구름조금	-2°C
구례	구름침차적어짐	-5°C
해남	구름조금	-4°C
장흥	구름조금	-4°C
순천	구름침차적어짐	-4°C
영광	구름조금	-3°C
전주	구름조금	-3°C
군산	흐림	-2°C
남원	구름침차적어짐	-6°C
혹산도	구름침차적어짐	2°C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체감지수	동파지수	뇌출증지수
서해 남부	일보다	서~북서	1.5~2.5m	15~20	0~5	0~5
만보다	서~북서	2.0~3.0m	20~30	5~10	5~10	5~10
남해 서부	일보다	서~북서	1.5~2.5m	15~20	0~5	0~5
만보다	서~북서	2.0~3.0m	20~30	5~10	5~10	5~10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일보다	서~북서	1.5~2.5m	11:09	03:56
만보다	서~북서	2.0~3.0m	23:04	16:55	16:55
남해 서부	일보다	서~북서	1.5~2.5m	06:16	12:25
만보다	서~북서	2.0~3.0m	18:19	--:	--: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광주지방기상청)



고등학교·공립 유치원 등

내년 수업료·입학금 동결

전남도교육청은 2011학년도 고등학교와 공립 유치원 등의 수업료, 입학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교육 재정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경기침체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아 동결하기로 했으며 2009년 이후 3년째다.

이에 따라 고교 수업료(분기별)는 시 지역 평균화 지역이 28만8000원, 도서벽지 15만9000원 등이며 유치원은 6만8400원(시지역)에서 3만3600원(면지역)까지다. 광주시 교육청도 내년 수업료 등을 동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기자 penfoot@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국제보청기

전자 습기제거기 (Avantgarde) New Dry box 새로운 전자습기 제거기 출시

* 기존의 습기제거기 기능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여 UV(자외선)를 통해

보청기의 빅테리아까지 99.9% 제거해주는 신개념 습기 제거기

* 원래 물은 수분으로 인해 귀 안에 항상 습기 차게 됩니다.

이런 습기와 귀자리로 인해 보청기 기능이 저하되게 됩니다.

* 보청기는 인체에 적용하는 기계입니다.

그리므로 살균처리와 청결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알기모르게 보이는 빅테리아로 인해 인체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균을 이제는 새로운 전자습기 제거기로 해결하세요.

본점 062-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

충장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전라남도 순천시 영동 32-5

목포점 061-262-9200

수능 졸전인강무료

EBS 및 수능족보 인강의 최강의 강사진을 소개합니다

